

데스크 시각

기현호



한국에서 기운이 가장 센 여성은 누구일까. 어렵지 않게 역대선수 장미란(24·고양시청)을 꼽을 수 있다.

실은 그녀는 우리나라 최고의 배구 선수로, 지난날 26일 태극에서 열린 2007 월드컵 여자 최종리그(75kg 이상급)에서 용상 181kg, 인상 138kg, 합계 319kg를 들어 올렸다. 종전 자신의 세계기록(318kg)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라이벌' 중국의 무슈양슈양을 누르고 세계 최고에 올랐다. 세계선수권 3연패를 이룩하며 역대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그녀에게 '세계를 들어올린 여자'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음식 너무 맛있어 행복”

세계 최고의 여성도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두터운 손이다. 그녀는 막노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보여주기용 극도로 꺼린다. 하루 평균 5만kg의 역기를 들어올

리는 고된 훈련 때문에 아까씨 손답지 않게 무거웠다. 1t 트럭 50대를 매일 들어올렸다 내렸다하는 셈인데, 하지만 최고의 향향 그녀의 굳은 의지는 손바닥에 드는 괴물같은 무게를 이겨내지 않았다.

이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따

광주체전, 감동을 대접하자

을 흘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장미란이 광주에 왔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광주에 온 장미란은 본보기자에게 첫 마디로 "광주의 음식 맛이 너무 좋아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마나 맛이 있던지 첫날 점심 때 세그릇을 먹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번 광주체전에는 장미란 뿐 아니라 수영의 박태환, 유도외 이원희, 양궁의 박성현, 체조의 양태영·김대은, 펜싱의 남현희 등 지방에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율

드 스타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과 함께 3만여명의 각 시·도 선수 및 임원과 응원단·관광객 등 10만여명이 광주를 찾고 있다. 그들도 아마 장미란처럼 광주방문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사실 20~30년 전만 해도 전국체전은 온 국민의 축제였다.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고 각 시·도는 고장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였다. TV에서는 개최식부터 폐회식까지 모든 행사, 전 경기를 중계하며 당시 특별하게 즐겨거리가 없던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신문들도 온통 체전소식으로 가득 찼다.

개최도시로서는 지역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다. 때문에 매스컴 입과 카드섹션에 남녀 고교생들을 차출했고 여블썰 몇개월동안 팜을 흘리며 가을을 준비토록 했다. 일반인은 물론 대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총동원했다.

그러나 이제 전국체전은 참가 선수·임원 그들만의 축제이자, 개최지의 잔치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생겨나면서 크게 위축됐다. 박지성, 이승엽, 박찬호, 최정주,

박세리 등이 탄생하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고 순위도 의미가 퇴색됐다.

잔치상 차림은 시민 몫

전국체전의 이같은 현재 위상을 감안할 때 광주시민, 자원봉사자들은 전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이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잔치상을 잘 차리고 잘 대접하면 된다. 맛있는 음식이 푸짐하고, 인절미와 찰떡, 불고기 넘치는 광주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박업소와 식당, 택시의 친절은 말할 나위없다. 문화수도니, 관광도시니, 예술의 고장이니 하는 일은 행정기관에 맡기면 된다.

우스갯소리로 체전기간 동안 술집을 찾는 시민은 애항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시민들은 유혹음식집이나 식당에서 외식을 만나면 좋은 자리 양보하고 외식은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한번쯤 가족, 이웃끼리 손잡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열리는 경기장에 나가, 광주·전남 선수가 아닌 타 지역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장미란이 행복해 하는 것을 봤듯이, 손님들을 위해 시민들이 잔치상에 올릴 것은 다양한 '광주의 감동'이다.

/체육부장 khh@kwangju.co.kr

시설

F1특별법 등 지역현안 처리 또 무산되나

'서남해안 특별법' '포틀러원(F1) 특별법' 등 전남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정치권의 정략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 1일과 2일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서남해안 특별법과 F1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정치개혁법 등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 심사조차 못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처리가 대선 정국에 묻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을 향한 지역민의 눈총은 따갑다. 정치권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이해득실만 따지며 연말 대선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서남해안 특별법이나 F1 특별법이 대선과 무슨 관련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특별법은 낙후돼 있는 서남해안 개발을 촉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으키기 위한 법안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묶여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부분의 정당과 정파는 특별법 처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왔다뭇 뺏겼다고 약속했다. 그런 정치권이 '내 탓 타랑'을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특별법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특별법의 처리가 연기되면 심각한 정치적 손실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나라당이 서남해안 특별법과 F1 특별법 등을 정치개혁법과 연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치권이 전남의 현안인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별법을 지연시켜서는 거센 반발을 살 것이다.

충장로축제, 광주 대표축제로 만들자

광주 충장로축제가 9일 개막했다. 축제의 주제는 '7080세대와 2030세대의 화려한 만남'이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및 포크송으로 상징되는 7080세대와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표현되는 2030세대가 서로 만나 추억을 되새기고 젊음을 뽐내며 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불거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주최측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다.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퍼레이드와 추억의 동창회, 미니스커트 및 장발 단속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44개 시·군·구와 중국 등 해외의 자치단체도 참여해 각종 문화공연을 벌인다.

올 축제는 전국체전과 함께 열려 외지인들에게 광주의 특색과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전국체전과 축제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전기간 방문객

이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충장로축제는 충장로의 옛정서를 되살려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잠재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이번 축제를 앞두고 충장로 거리를 깔끔한 대리석 블록으로 교체하고 오색찬란한 루미나레로 단장했다. 축제의 기획의도와 빛의 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살리려는 것이다.

축제가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사 대부분도 시민들이 한 데 어우러져 충장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추억과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꾸며졌다. 시민 참여는 충장로축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4회를 맞은 충장로축제는 광주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충장로축제가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無等鼓

지난 2~4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의 전쟁 리스크를 완화했다는 점과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김기춘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인들이 지적하듯 성공한 기업인들의 속원사상이었던 '3통(通) 문제 해결은 급선부 중의 급선부'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3통은 통행, 통신, 통관 등 기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

이 확대되고 휴일 통행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물류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통신도 기술적인 문제만 보완되면 개방 안 할 이유가 없다. 특히 남북이 입장을 같이 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방북 후 "향후 안전투자·3통에 대한 보장과 전력, 송수 등의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기존 사업을 포함한 신규 분야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긍정적이다. 이번 회담이 '통 큰 투자'와 상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쪽의 전화 사용 등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 처리가 즉

각각이지 못하고, 그 결과 생산차질이 빚어지기 일쑤다. 제품이나 원재료 등 물품을 내보내고 가져올 때는 물론이고 사람이 드나들어야 하는 통관 절차도 너무 복잡해 기업하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행히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3통 문제와 물류가 들어가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통행시간

3통(通) 문제



이 확대되고 휴일 통행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물류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통신도 기술적인 문제만 보완되면 개방 안 할 이유가 없다. 특히 남북이 입장을 같이 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방북 후 "향후 안전투자·3통에 대한

보장과 전력, 송수 등의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기존 사업을 포함한 신규 분야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긍정적이다. 이번 회담이 '통 큰 투자'와 상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쪽의 전화 사용 등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 처리가 즉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기고

은미희



제88회 전국체전이 지난 8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오는 14일까지 육상과 수영, 레슬링, 체조 등 41개 종목에 걸쳐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 기간 동안 각 시·도 대표선수과 임원 등 3만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체전은 국내 스포츠 대회 가운데 가장 큰 잔치이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 국내의 관심이 광주로 쏠리게 된다.

이번 체전은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유망주를 발굴하고, 각 종목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한편 기간 후속하게 훈련을 해 온 선수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지역적으로는 광주의 참모습을 알리고 광주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문화구조는 지역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부르짖으면서도 지방문화는 사람들의 휴대 속에 촌스러움과 이음동의 어가 돼 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지역의 경우 지역의 문화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산업으로 성장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광주 역시 광주의 김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 되고, 광주라는 지역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문화 향유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거기에 문화 중심도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문화체전, 광주를 알린다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온 광주가 그 기틀을 다져가는 모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번 체전이다. 문화중심도시라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광주가,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대업이며 숙제인 것이다.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나가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 연기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문화산업이고,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광주는 그런 면에서 출발점은 고장이 아니다. 전국 최고의 맛과 멋을 가진 고장이자 지역이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명인이 배출되어 탄생한 고장이 바로 광주인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향인 셈이다. 그 풍부한 문화적 자산에다 문화중심도시라는 국가적 지원까지 등에 업었으니 광주는 출발선 상부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국체전이 갖는 의미가 크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광주로 쏠리는 이때를 광주시, 광주의 참모습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주를 찾는 손님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며, 집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고 단정하며, 선수들에게는 지역을 가르치 않고 아끼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광주시 곳곳에서 열리는 풍성한 예술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명석을 깔아주었으니 노는 것은 시민들 몫이다. 우리가 먼저 즐겁게 놀면 광주를 찾는 손님들도 궁금한 얼굴로 그 관에 기울 것이다.

특히 이번체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체전', '문화예술체전', '빛의 체명'을 탄생한 '문화체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이번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소설가·광주체전 명예홍보대사>

한번 떨어지면 2년 기다리라니...귀화시험 횟수 늘려야

한국인이 되겠다고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한 해 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귀화시험이다. 귀화 시험은 매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40분간 치러진다. 하지만 귀화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시험을 한 번 보기 위해 2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번 귀화 시험에 떨어지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물론 한국인으로 살기 위한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 문화나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 문제 틀려서, 한글 한자 잘못 적어 불합격된 뒤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절반의 한국인'으로 갖는 불편함과 불이익 등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까. 한국인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시험 횟수를 늘리는 등 필요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대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이병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등장했던 견배주와 만찬주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은 와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자리했던 만찬에는 샤또 라투르를 내놓아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샤또 라투르는 소위 보르도 5대 샤또 중의 하나인 특급 와인이다. 이 뉴스 후에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서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고 한다. 샤또 라투르는 이후 '김정일 와인'이란 닉네임까지 얻게 됐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은 와인

국 닉스 대통령,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등 외국 귀빈이 중국 방문시 단골로 등장한 만찬주였다. 이로 인해 마오타이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서 우리 술이 만찬주로 사용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산 APEC 정상회의의 만찬주로는 천년약속과 보해 복분자주가 사용되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는데 이후에 이 술들은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단골 만찬주로 사용되고 있다.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앞두고 보르도 상공회의소는 와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와인을 대상으로 등급을

정상회담 만찬주

은 '미셀 피카르'인데 부르고뉴 와인으로 생산량이 극히 한정적이어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와인이라고 한다. 샤또 라투르보다는 낮은 등급이지만 높은 등급은 20~30만원대의 것도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 와인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비해 남측에서 주최한 만찬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 등장했다. 상황 버섯 발효주와 약주, 복분자주 외에도 대추술, 홍주, 문배주 등 11가지 팔도 전통주가 만찬장에 올랐다. 만찬주로만 보면 복측이 훨씬 글로벌화가 진행된 느낌이다.

정상회담은 자국 술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국이 자랑하는 마오타이주는 모택동 주석이 정부공식연회에서 반드시 사용했던 술로 유명하다. 미

매졌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1등급 와인인 4대 샤또이다. 이 때의 등급이 단 한 번의 이변(1973년 샤또 무통의 1등급 격상) 외에는 15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9월 11일 국제청주최로 제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가 열렸고 이 대회에서 6대 대한민국 명품주가 선정됐다. 6대 명품주는 보해 복분자주, 천년약속, 백세주, 화랑, 산사춘, 장수막걸리이다.

이 중에서 천년약속, 백세주, 보해 복분자주가 이번 정상회담 만찬시에 견배주와 만찬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명품주가 더욱 발전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이 즐겨 찾는 술이 되어 각종 국제 대회에서 화제를 몰고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해양조 홍보실장·2005년 8월 수석사>

은편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불법 운전교습·호객행위 방관관 할 건가

동생이 다니는 운전면허학원에 가끔 내차로 데려다 주는데, 학원 정문앞에 차를 세울때마다 주행연습을 시켜주겠다는 호객꾼들이 쉴새 없이 몰려 든다. 불법 운전면허교습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차들이 보험이나 제대로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수험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문으로 나오면 우무무 물러가서 가격 흥정한다. 호객꾼이 나서서 "1시간에 3만원, 2시간에 5만원, 시험은 언제예요?"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운전면허학원 앞에서 불법 교습을 선전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아닌가. 정식 운전학원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들의 운전 교습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제지를 받지 않는다.

또 이들에게 배워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안전 운전 요령 등 체계적 운전 교육이 아닌 합격 요령만을 가르쳐 주는 것에 그칠 것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 | | | |
|---|------------------|-------------------------|---------------------|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 | | |
|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편집인대 | 사회 2부 2200-619 | 총무부 2200-511 | 문화사업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29 | 문화사업부 2200-626 | 광고국 2200-521 | 판매부 2200-551 |
| 정치부 2200-616 | 여론대응부 2200-628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경제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1부 2200-618 | 사진부 2200-690 | 사업2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0 |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